‘생사화복의 주관자’ 신앙의 음지

(룻기 1:1~22)

19.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20.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2.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생사화복의 주관자’ 신앙의 음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신앙의 음지
우리는 하나님을 생사화복의 주관자로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에는 음지가 있습니다. ‘음지가 있다’는 말은 ‘양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수양산 그늘이 강동 팔십 리를 덮는다.”는 말이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의 영향력이 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음지에 머물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성경말씀대로 믿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저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원망이 더 많이 생깁니다.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어려워지고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생기는 재미와 기쁨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괴로움이 더한 것은 신앙의 양지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하심을 믿어야 하지만 신앙의 음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양지로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음지와 양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룻기입니다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본문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옷니엘부터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인 BC

1375년으로부터 1050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룻기의 시대를 연구해보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기근이 있어서 요단강 동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 '기근'을 실마리로 삼아보면 기드온이 등장할 때의 시기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압박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농사를 약탈하고 짓밟았습니다. 이즈음에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엘리멜렉의 집안은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라는 나오미의 고백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력함'은 풍족한 재산이나 사회적 명성이 기근으로 위협을 받게 되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그 잘잘못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해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나오미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합니다.
이주를 했는데 남편이 먼저 죽고 두 아들이 장성해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삼았는데 자식도 없이 두 아들이 다 죽게 되고, 이민 갈 때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도 다 소진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이것이 이민 생활 십년이 못 되어서 나오미에게 주어진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두 며느리가 함께 따르려하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 때에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미의 신앙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계속 본문에 나옵니다.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모압 지방에 살고 있던 나오미가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대해서 들은 소식은 '그들에게 양식이 풍성해졌다'는 사실 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의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 신앙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미의 신앙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그늘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그 그늘에 머물러 있는 대표적 신앙입니다. '베들레헴에 양식이 풍성해졌다'는 소식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풍성해졌다'라고 해석하는 나오미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우상들이 편만했듯이, 요단 동편인 모압 땅에도 그모스나 몰렉 같은 신들의 우상숭배가 왕성했는데, 그곳에서 십년을 지내는 동안에 여호와 신앙을 유지했다는 것은 나오미도 대단한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 같은 남신과 여신 숭배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라는 말처럼 인간의 삶에서 결혼이나 죽고 사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은 너희에게 남편을 주셔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내 아들과 결혼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 하에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라고 합니다. ‘나오미’라는 말에는 ‘기쁘다, 감미롭다, 달콤하다, 은혜롭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반대로 ‘마라’라는 말에는 ‘쓰디쓰다, 괴롭다’는 뜻인데 이렇게 부르라고 한 이유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는 말처럼 전능자가 천지를 만드셨으므로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라고 하는데 내가 풍족한 것도 빈손이 된 것도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심에 대한 고백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마음속에 도대체 기쁨과 희락이 없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오미의 신앙이 엄청난 것은 며느리들이 따라올 때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며느리들 보기에 ‘자신이 민망하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든 재산이 소진되어 빈털터리가 되는 동안에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며느리들이 봤는데, 그 동안 며느리들의 눈앞에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단 한 번도 좋은 일이 없었으므로, 복 없는 여자로 낙인이 찍힌 것 같은 상황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 며느리들까지 휘말려들게 됩니다. 며느리들이 보기에도 민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이 안 되고 병들고 자식이 잘 안 되면 누구에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힘든데 그런 심정으로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상태가 바로 생사화복 주관자 신앙에 대한 음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믿지만 나의 삶의 형편에는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있던 것까지도 다 없어지고 맙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가져가시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며느리들 보기에 민망해죽을 지경입니다. 이 신앙의 상태가 보통 사람들의 신앙 상태입니다.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의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의지

적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붙잡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유전 죄의 결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붙잡아서 살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생각과 의지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내 마음은 이 세상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이 없어지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생각으로 붙잡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괴로움은 더 증폭되는데 이것이 음지에 있는 상태입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전파 될 때의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퍼져서 소아시아의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핍박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 나오미와 초대교인들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알았던 것은 훌륭한 믿음입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믿는 모압 땅에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은 것은 놀라운 신앙입니다. 기드온 시절에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신앙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드온조차도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시하게 되는데 나오미는 훌륭하지만 음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만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생사화복을 뛰어넘는 복 자체이심을 나오미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태어나는 것에도 의미가 있고 죽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삶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축구장으로 비유하자면 우리는 축구장에서 뛰는 선수로 골을 많이 넣는 것을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축구장 바깥의 감독이나 응원단장 정도로 여겨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를 불어넣어주셔서 골을 많이 넣게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골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집을 잃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었으면서도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처럼 가족과 재산을 잃고 이민의 결정이 잘못된 것을 후회막급해 하면서 우울해했다면 절대로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나오미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장수하고 두 아들은 형통해서 모압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출세했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면 사람들이 나오미를 추켜세웠을 것이고 모압 땅에서도 여호와를 증거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이 없고 재산을 잃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도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진짜 복이 남았음을 알고 있었던 것인데,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질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사화복 신앙의 양지입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뛰어넘는 복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의 역사를 주관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민은 하나님의 생사화복에 대한 피 주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때에 우리를 개입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관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사를 주관합니까? 죽으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기 전에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과정에 우리를 개입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그저 복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신앙의 음지에 머물러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신앙의 본래 의미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신앙의 배후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지금 삶의 형편으로 인한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괴롭더라도 생각만이라도 생사화복 주관자 신앙의 음지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내게 비록 괴로운 형편이 주어져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나 초대교인들이나 사도 바울이 그랬고 마케도니아교회가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짜 복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능가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되살리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살던 시대의 여자들로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아들과 재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잃고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게 아닙니다. 나오미의 신앙을 볼 때 남편 엘리멜렉이나 두 아들도 이런 신앙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지요. 좋은 곳으로 데려 가신 것입니다. 나오미를 세상에서 의지처가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제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음지에서 괴로워하던 나오미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설교하고 계십니다.

나오미와 우리의 차이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와 초대교인들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번제가 십자가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나오미는 번제가 없는 모압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번제'가 뜻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자꾸 이 세상 것을 붙잡기 때문에 생사화복의 주관자에 대한 신앙의 음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붙잡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신앙할 때 내 삶에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면 그늘이 생기고 우울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복을 요구하고 강압할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자신을 복으로 갖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지금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게 하는 모든 대상들로부터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참 복이신 하나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로 펼쳐 나가시는 과정 중에 나를 이용하셔서 함께 동행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신앙의 음지로부터 십자가의 생활화를 통하여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